



임실군은 지난 14일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실군·전북테크노파크 비즈니스스테이블 자료사진.

‘기업하기 좋은 임실’ 건설

지역내 중소기업 4개 선정 4600만원 투입... 맞춤형 지원사업 다각화

임실군이 ‘기업하기 좋은 임실’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의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4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선정해 보조금 4,600만원을 들여 화장실 개보수, 작업장 환경개선 등 열악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7개 업체에 2억원 한도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 3%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4개업체를 선정 지원해 경쟁

력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노후된 농공단지에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아스콘 재포장 및 가로수 정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농공단지 잡초제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군은 특히 관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1,000부를 발행해 전국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제품 홍보 및 임실군의 각종 기업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실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입시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자재나 물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13억원 정도의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성과를 이

뤘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수렴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의 다각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달에는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기업인과 함께 전북TP전문위원,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인 임실군·전북테크노파크 비즈니스 테이블 형태의 간담회를 마련,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군은 이같은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관련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임실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남원·임실 대표 농산물 수도권 시장 ‘조준’

서울 창동 하나로센터서 무료시식·판촉행사 호응

순창군과 남원시 임실군이 손을 맞잡고 지역 농산물의 수도권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순창군은 지난 14일 서울 창동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순창, 남원, 임실 등 남부 생활권 지역 대표 농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세 지역 대표 농산물에 대해 무료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에

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MICE사업단이 주최했으며 순창, 남원,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이 주관했다. 황숙주 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세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농협조합장 등 50여명이 대거 참여해 지역 농산물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참석자들은 블루베리, 쌀, 파프리카 등 중점 품을 나눠주고 직접 소비자들과 대화하며 순창, 남원, 임실지역의 청정농

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소비자들에게 선보인 농산물은 순창의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쌀과 남원의 방울토마토, 복숭아, 파프리카, 오이, 쌀, 임실의 복숭아, 쌀 등 8개 품목이다. MICE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으로 순창군이 주관하고 남원시, 임실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시군을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열악한 예산상황 돌파구 찾았다

지리산 천연물 기반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국비 확보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를 찾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지역의 현안사업인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지리산 천연물 기반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은 남원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비확보 출장은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로 인해 보건산업진흥 예산이 삭감되고 남원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예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비확보 행보로 이해된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리산에는 마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이 있는 680종의 자원식물이 자생하고 있다고 한다. 남원시는 이에 착안해 주요 대상 종을 선정하고 소재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오는 9월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생산시설은 일련의 계획 속에서 지리산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원료 재배 및 공급기반 확보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원료재배능력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귀농귀촌 시책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무허가축사 적법화 순항

순창군이 6월 30일 군과 협업체, 지역 건축사 등이 참여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한우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진행해 축산 농가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한우농가 대상 간담회는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황숙주 군수가 직접 참여해 취지를 설명하고 한우농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축사 한우농가의 적법화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군의 축산부서와 개발, 인허가 부서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해 일스톱 일괄처리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쏟았다. 군은 앞으로 다음주 까지 잣소 등 5개 단체 축종별 간담회를 계속 진행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 3월 24일로 적법화 기간이 끝나에 따라 적법화 하지 못한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일괄처리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관련부서 전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은 심민 군수, 최성미 위원장을 비롯해 한문중 사학과 교수 및 연구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임실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 역사 담은 군지 편찬

20년만에 간행... 집필 위탁연구소 확정

임실군지편찬위원회(위원장 최성미)는 집필 위탁 연구소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임실군지편찬위원회를 개최했다. 심민 군수, 최성미 위원장을 비롯해 원고 집필을 맡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정라문화연구원(소장 윤상원) 한문중 사학과 교수 및 연구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사업설명, 편집기준, 집필위원 선정 및 기준 마련 등 군지편찬을 위한 주요절차사항을 논의했다. 임실군지 간행사업은 역사·문화, 정치·사회, 산업·경제, 교육·복지·체육 분야 원고를 집필하고 주민 열람과정을 거쳐 오는

2018년 12월 최종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원고집필을 위해 임실문화원(642-2211)과 문화관광치즈과(640-2315)는 개인문집류, 가문소장 고문서류, 문중 자료, 마을사진, 6·25 당시 자료, 새마을운동 당시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 6기를 맞아 과거 50년의 눈부신 발전상과 임실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성미 위원장은 “임실군지 원고 집필 업체가 선정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충실한 원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문중 교수는 “지역 사정을 제대로 반영해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부와의 정책적 의견교류 및 대안 모색 중심의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집행부에서 상정한 ‘임실군 봉황인 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문영두 의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개선사항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한 일사방 지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맨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트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양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	